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 : 마가복음 8:1-26

요절 : 마가복음 8:21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를 축사하셔서 사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내면성이 무엇인가? 영적 지도자로서 경계해야 할 악영향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사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1-10)

예수님께서 사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6장에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1)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6장에서 나오는 무리와는 다른 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습니다. 이를 볼 때 주로 이방 땅에서 나아 온 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목자가 되십니다.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참 목자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목자의 사랑에 갈급하여 만사를 제쳐 두고 예수님을 사흘이나 계속 따라 다녔습니다. 이들은 배고픈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2,3)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실 때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스플랑크니조마이) 여기셨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 심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긍휼과 동정심을 갖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동정심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문제 많은 양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리를 직접 먹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무리들을 먹이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양 무리의 목자로 키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찌하든지 제자들을 그 시대 목자로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홀로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도 혼자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무리를 먹이는 일에 제자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그들이 무리를 책임지고 먹이는 목자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제자들이 영적으

로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을 믿고 그들과 의논하며 역사를 섬겨 나가셨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어찌하든지 그 시대의 목자로 빚으시고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함께 의논하면 관심이 없던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되고 자발적으로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4)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에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유사 문제를 풀어보았으니 이제는 영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하며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얼마 전에 어디서 떡을 얻어 오천 명을 배부르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막6:38a)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병이어를 찾아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이 이를 축사하심으로 오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자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포함하여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다 잊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도 쉽게 잊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현실이 닥치면 과거 체험한 은혜를 다 까먹고 원망,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기가 막힐 죄의 웅덩이에서 구원받은 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비참하던 삶에서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잊어 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수도 없이 체험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실문제에 부딪히면 과거의 체험을 잊고 부정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여름수양회를 앞두고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들이 방학이 되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양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능력을 기억하고 이번 수양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고 양들을 초청하고 수양회 역사를 믿음으로 섬겨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무슨 방향을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5a) 예수님의 말씀은 오천 명을 먹이고자 하실 때와 같았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몇 개를 기초로 일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없는 것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는 떡 몇 개 가져와도 통하는 시대였으나 지금은 떡 몇 개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히13:8)

예수님은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현재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밝고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어떤 가능성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창조하고자 할 때 항상 광야라는 현실에 부딪힙니다. 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부정적이 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가능성을 찾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 때 광야라는 현실은 오히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아무리 광야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찾아보면 떡 몇 개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있는 것을 찾았을 때 떡 일곱 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5b) 그들은 보잘 것 없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칠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시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6-9) 예수님은 이를 받으시고 축사하사 사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과 제자들의 순종은 칠병이어로 사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를 통해 초대 전대 호대 동신대 등 캠퍼스 영혼들을 먹이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우리가 제자들처럼 순종하여 우리에게 있는 떡 몇 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와야 하겠습니까. 수백 척의 일본군 전함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두렵워하거나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보고를 드린 이순신 장군처럼 ‘제게는 아직도 1:1의 떡 몇 개가 있나이다. 기도의 떡 fishing의 떡 몇 개가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를 주님께서 넘치게 축사해주셔서 이 시대 수많은 캠퍼스 영혼들을 먹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흠여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10) 달마누다 지방은 갈릴리 서쪽 해안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지역에서 유대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II.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11-26)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11)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로 사천 명을 배불리 먹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를 시기하고 훼방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 달라는 요구였으나 실상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늘로 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표적을 통해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귀신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사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고친 사건, 칠병이어로 사천 명을 먹이신 사건 등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의 표적과 달랐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로 부터 오는 메시아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리고

메추라기가 우박같이 쏟아지는 기적을 보여 준다는지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표적을 보기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로 부터 오는 메시아의 표적은 모세처럼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다윗 왕 같이 주변 민족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힘 있는 메시아,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민족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당장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으며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12)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표적만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이들은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을 사람들이 아니요, 표적만 보기를 원할 뿐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축복하셔서 그 시대 목자요 영적 지도자로 세우주셨으나 죄악 된 소원대로 살고자 하여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심령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불신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합격만 시켜주시면 취직만 시켜 주시면 병만 낫게 해 주시면 부자만 되게 해 주시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합격 유무와 관계없이 믿는 것이요,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표적신앙을 다른 말로 구복신앙(求福信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표적을 보아도 또 원하는 복을 받더라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큰 표적을 구하고 더 큰 복을 구하는 유치한 신자로 퇴보를 하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표적신앙을 경계하고 말씀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표적을 보지 않더라도 믿는 신앙 현실적인 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말씀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교만과 불신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13)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배부르게 먹은 나머지 칠병이어서 4천명이 먹고 남은 떡 조각 일곱 광주리를 가지고 오는 것을 깜박 잊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14) 그들에게는 떡 한 개밖에 없어서 당장에 저녁 식사가 염려되었습니다. 사천 명이 먹을 때 원 없이 먹었지만 제자들의 배는 금방 꺼졌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파오자 떡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챙기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고파오는데 당장 끼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예수님에게 혼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온통 두고 온 떡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경고(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15)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시대 지도자들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

여 순수한 하나님의 종들로 키우시고자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yeast)입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서 말 전체를 부풀리는 강력한 팽창력이 있습니다. 누룩은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여서 좋지 못한 영향력 즉 악한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악영향을 누룩에다 비유하셨을까요?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무서운 침투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악영향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성도들의 모임에 침투해 들어오면 모임 전체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악영향은 침투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누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그 시대의 일꾼이요, 종교 지도자는 그 시대의 양심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악영향이 무엇입니까?

첫째,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外飾)입니다.

예수님은 7장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외식임을 깨우쳐주셨습니다.(막7:6) 누가복음 12:1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여”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외식(外飾)은 겉을 꾸민다는 뜻입니다. 곧 겉은 아름답고 선하게 꾸미지만 속은 더럽고 악한 것을 말합니다. 겉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이중 생활을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손도 씻고 목욕도 하며 깨끗한 체했지만 속으로는 불신자와 같이 온갖 탐욕이 가득하여 이중생활을 하였습니다. 겉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몄지만 속은 더럽고 악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종교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하고 살았습니다.

겉을 열심히 꾸미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겉을 꾸미는데 극성입니까? 겉을 예쁘게 꾸미고 포장을 멋있게 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형수술과 다이어트가 성황을 이룹니다. 어디를 가나 성형 미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면을 가꾸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데 관심을 갖기보다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겉모습을 예쁘고 멋있게 가꾸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고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연애감정과 음란, 시기심과 질투, 미움, 교만과 여러 악한 생각, 야심과 방탕한 생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기 쉽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고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드러나는 활동에만 열심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 중심을 불꽃같은 눈으로 다 살펴십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겉을 가꾸는데 힘쓰기보다 속을 가꾸는데 힘써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외식 외에 한 가지 더 있다면 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청빈한 척 했지만 돈을 무척 밝혔습니다. 실상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겼습니다.

오늘날 돈의 누룩이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돈 문제에 빠져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돈은 강력한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심어 줍니다. 하지만 재물에 소망을 둘 때 복음역사보다 세상 썩어질 것에 소망 두고 살게 됩니다. 복음역사를 섬길 스피릿이 사라집니다. 결국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의 누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먹고 입을 것이 있을수록 족할 줄로 알아야 합니다.(딤후6:8) 그리고 내게 남는 돈은 적극적으로 복음역사에 드려야 합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눅16:9) 돈으로 양들을 섬기고 세계선교에 적극 지원하는 것이 물질의 누룩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둘째, 헤롯의 누룩은 음란과 불의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대제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로 그는 로마황제에게 잘 보여 갈릴리와 베뢰아를 BC 4-39년까지 통치했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지닌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권력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힘으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심히 음란한 자였습니다. 그는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파티를 즐기다가 요요한을 추는 헤로디아의 딸의 자태에 넋이 빠져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의인 요한을 목 베어 죽인 자였습니다. 그는 이처럼 음란과 불의한 삶을 살다가 결국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행 12:23)

우리 모임은 젊은이들의 모임이라 육신주의의 누룩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육신주의의 누룩에 물들게 되면 형제자매님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지 않고 연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하고 병든 병아리와 같이 시름시름 앓다가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세대에 복음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장차 이 시대를 감당해야 할 젊은 지성인들마저 세상의 누룩에 물들어 신앙이 타락해 버린다면 더 이상 이 시대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17:15-17) 바울은 로마서 12:2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는 음란과 정욕의 누룩에 물들기 쉽습니다. 이 시대는 on, off 라인으로 음란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TV 영화 잡지는 물론이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쉽게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광란의 축제를 하였습니다.(퀴어문화축제 KQCF,

Korea Queer Culture Festival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의 성소수자 축제다. 퀴어(Queer)란 성소수자를 의미한다.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에 처음 개최됐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축제를 진행하며 축제 기간과 구체적인 장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2009년부터는 대구에서도 매년 여름 대구퀴어문화축제 DQCF가 열리고 있다.) 이런 시대에 조금만 방심하고 마음을 타협하면 음란물에 누렇게 뜨게 됩니다. 눈이 풀리고 스피릿이 풀려서 영적투쟁을 할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금의 허용이 결국 나의 영혼을 누렇게 뜨게 만들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인 파위는 순결함과 절대성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의 음란과 정욕의 누룩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새벽이슬 같이 맑고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적 지도자로 키우시기 위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16) 그들은 떡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누룩 말씀을 하시자 즉시 떡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최소한 떡 다섯 개는 있어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어 염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떡 생각 때문에 꼭 막혀 버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아직도 먹는 문제에 매여 영적인 이해가 너무 둔 하자 이들을 보시는 예수님은 심히도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깨달음이 없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17,18) 예수님은 네 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신명기 29장 2-4절에서 모세가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 모두 기적의 떡을 먹거나 보고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눈 귀 머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칠병이어로 4천명을 먹이신 사건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19a) 그러자 그들은 “열 둘이니이다.”(19b)하고 대답했습니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20a) 그들은 “일곱이니이다”(20b)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21)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표적을 체험하였으나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표적과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우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과 상황만 바라보며 장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매우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떡에 넣은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나쁜 영향력을 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큰 희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아 불신의 죄악에 빠져 현실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 전에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는 역사가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가관이 없을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가관을 가질 때 과거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도우시고 미래도 반드시 도와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우리는 염려 대신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III. 벧새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22-26)

22-26절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벧새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4천 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한 것을 책망한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앞 절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단번에 고쳐 주시지 않고 단계적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데 정도로 희미하게 고쳐 주시고 그 후에 만물을 밝히 보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현재 영적 상태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데 것과 같은 희미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이 언제인가는 영적 눈을 떠서 영적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지금은 영적으로 초보단계이지만 장차 영적으로 온전하게 될 희망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 가운데 영적으로 둔한 이들을 오래 참으시며 인내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부족하지만 이 시대의 양 무리의 선한 목자로 영적 지도자로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본문의 제자들처럼 영적인 것을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영적인 눈이 서서히 뜨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영적 세계를 완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역시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1:17-19)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내면보다 외모를 가꾸는 분위기 음란하고 육신적인 분위기 또 돈을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들로서 음란 문화와 싸우고 물질주의와 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의 겸손과 목자의 심정을 힘써 배움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영적인 지도자들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인격을 배움으로 예수님을 닮은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